

‘현우경’ 이야기 (43)

대시의 깨달음 ①

대시 일행은 어느날 한 바라문의 집에 머물게 됐다. 그때 용궁에 있다는 붉은 여의주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여의주는 신통을 부리면 끊임없이 보물을 채워주는 진귀하고도 신기한 것이었다.

“정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궁 안 용왕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인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가질 수는 없겠지요”

바라문의 도움을 받은 대시는 일곱 겹의 배를 마련했다. 그리고 한 달을 향해 배가 있는 섬에 닿았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온갖 종류의 보석들이 쌓여 있었다.

대시와 일행은 그 중에서도 값이 나가고 진귀한 보석들만 배에 한가득 실었다. 하지만 대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바라문에게 들었다는 붉은 여의주를 찾고 싶었다. 대시는 상인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용궁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독사를 만나기도 했지만 두려움을 버리고 그들에 대한 자비심

을 가지니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게 성문 앞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 두 마리가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다. 이에 용은 스프릭 몸을 아래로 낮추고 만다. 그렇게 대시는 그들을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멀리서 대시가 들어오는 것을 본 용왕은 깜짝 놀랐다.

“내 성 밖에서는 일곱 겹 목이 있고, 독사가 가득 차 있어 누구도 넘어 올 수 없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이기에 여기까지 왔는가?”

“사람들은 빈궁하여, 의식을 위해 몸과 마음을 괴롭히며 서로 해치고 속이면서 열 가지 악을 짓습니다. 또한 목숨을 마친 뒤에는 다시 세 갈래 괴로움 속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들을 가엾이 여겨 구제하려 생각하고 용왕의 여의주를 얻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무릅쓰고 온 것입니다. 바라문대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용왕은 대시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내 그에게 공손히 대하여 묻는다. “여의주는 얻기 어려운 물건임

신통한 여의주 구해 중생을 구제하니...



삽화·강병호

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그것을 얻으려고 일부러 오셨습니까. 만일 그것을 꼭 얻고자 한다면, 너 달 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저의 공양을 받으시고, 또 저에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용왕은 대시를 큰 보살로 모시며 그를 존경하고 사모하며 알뜰히 받들어 모셨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나자 대시는 가야 할 때가

의주를 뽑아 그에게 바치고 이내 서원을 세웠다.

“반드시 부처가 되어 그들을 도탄에서 구제하십시오. 저는 그 시자로 총지 제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살은 승낙하고 다시 물었다.

“그대가 주는 이 구슬의 능력은 어떤가?”
“이 구슬은 능히 세상 안에 필요한 일곱

가지 보배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대시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성을 나왔다. 크고 작은 여러 용들은 모두 성 밖에 나와 배웅하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모든 용들이 이렇게 대시에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이를 시기질투하는 이들이 있었다.

대시가 떠나는 길에 기다리고 있던 용들은 신통을 부려 대시의 여의주 주머니를 훔쳐 버리고 말았다. 등이 허전함을 느낀 대시가 뒤를 돌아보니 이미 용들이 주머니를 입에 물고 멀리 날아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구슬을 얻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다. 이제 소원을 이루어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길인데, 저들이 내 구슬을 가져갔다면 나는 결코 놓아주지 않으리라.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이 바닷물을 다 퍼내 말라고 말 것이다”

대시는 큰 그릇을 가지고 물을 퍼내었다. 몇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않았고 먹지도 않고 물을 퍼내니 바닷물은 줄어들기 시작했

다. 당황한 용들은 대시를 찾아가 물었다.

“당신은 보배를 구해 무엇을 하려 하시니까?”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려 합니다”
“당신 말대로 한다면 우리 바다 가운데에도 중생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주지 않고 거기에 가지려 하시니까?”

“바다 가운데 중생도 중생은 중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다지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생들은 돈이나 재물을 위해서 죽고 속이면서 열 가지 악을 짓고, 죽어서는 세 갈래 나쁜 길에 떨어집니다. 나는 그 중생들에게 법을 알려 교화하기 위해 보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선은 가난을 구제해주고 다음에는 열 가지 착한 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용들은 그 말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 구슬을 도로 내주고야 말았다. “당신은 지금 그저 쉬지 않고 노력하니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대시는 금의환향해 일체 중생을 구하는 공덕을 베풀 수 있었다.

구성·정혜숙 기자 bwjh@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45) - 자라의 피 - 구성·김흥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about a turtle and a frog. Dialogue includes: '옛날 어느 강가에 화원이 하나 있었다.', '화원 주인은 화환을 잘 만들었다.', '이거 하나 목에 걸면 임금님 안 부럽지~', '화원 주인은 자리를 들고 강가로 갔다.', '그리고 구석구석 자리를 씻는데...', '아이구 시원해- 등을 잡고 머리도 좀 해주세요-', '술로 박박 씻어야 된다네~', '물속에서 기운이 세진 자라는 힘껏 몸부림쳐 버어났다.', '자라야 잠깐만!', '화원 주인은 자리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 '이 예쁜 화환을 걸고 가면 친구들한테 실컷 자랑할 수 있다네~', '토실토실 살쾅서 여럿이 먹겠는걸? 하하하', '자라는 피를 내어 노래를 불렀다.', '지금 내몸은 더럽다네- 온통 진흙 부성이라네- 강물에 씻기지 않으면 먹을 맛 안 날거라네-', '자라는 이에 응수했다.', '아저씨도 사람들한테 실컷 자랑하고 싶다네-', '맛있는 자라고기가 생겼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위기와 유혹을 지혜롭게, 버어냈다.', '안녕~', '크큭! 내가 졌다!'

Advertisement for '황금위패' (Golden Tablet) featuring a golden tablet with Chinese characters and a list of features: '고급 뱀나무 재질',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Includes contact info: 대표전화: 02-966-9650, (주) 대양, www.dya.xo.st

Advertisement for '새는지붕' (New Roof)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Text: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Includes contact info: 서울·경기: 02)456-8831, 강원도: 019-396-1110, 충청도: 010-8674-2357, 경상도: 010-9190-3350, 전라도: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Advertisement for '민속죽염' (Folk Salt) featuring a person in a field. Tex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민속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지죽염 125g 40,000원, 가 루지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78,5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지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www.msjy.co.kr